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7:13-14)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을 전합니다.

이곳은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3일간이라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말까지 명절(라마잔 바이람)을 보내고 있는데, 세계 곳곳의 폭탄 테러와 재난, 총기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각 도시를 번갈아가며 사고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또 복잡한 도심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활동에 제한을 받고, 봄부터 관광객이 줄어서 국적기의 운항 횟수가 줄었는데 이번 공항에서의 사건으로 관광산업의 어려움은 더 늘어날 것 같고, 저도 다른 도시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이후에 저와 한국 방문에서 돌아 온 H부인은 직장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불안한 출퇴근과 일찍 귀가하는 등 여러 사정상 만남이 뜸한 가운데 5월에 있었던 한식경연대회에서 이번에도 2등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2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등을 해서 한국에서의 대회 참가를 기대했었는데 실망했나 봅니다. 저는 심사위원인지라 공정하고자 제가 가르치는 아마추어인 학생들이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지 못해 번번이 1등을 놓치는 안타까움과 실력 향상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H부인 가정은 난민을 돕는 일에 열심이며 결혼한 첫째 딸이(변호사) 임신했고 치과의사인 둘째 딸은 봄부터 준비한 치과병원을 지난달에 개원했고, 셋째 딸은 지난달에 수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내중심가에 있는 둘째 딸 치과병원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금식기간에 금식이 끝나는 저녁 식사에 H부인 사돈댁에 초대 받아 가서 함께 교제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선행으로 난민들을 돕는 신실한 무슬림인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데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A는(38살) 친선탁구대회를 계기로 만났는데, 외교관이 꿈인 공부 잘하는 13살 딸은 한류 팬이고 문화원에서 기초 한국어를 배웠고 남편은 관광회사에 다니는데, A가 4주 기초 한국어반에서 수업을 마칠 때 시험 준비를 1주일 동안 방문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초대할 때 영적으로 열린 심령이 되어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거주 비자 연장을 위해 이곳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번 변경되는 절차가 순적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3년을 살았고 봄에는 이사를 기도하며 계약기간 전에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다가, 올해도 그냥 10% 인상한 월세 금액으로 눌러 살기로 했습니다. 문화원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주중에 강좌를 할 수 있는 부엌을 가진 집은 재정 부담도 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보다 개인적인 상황이 안식년을 가져야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된 사역 환경을 정리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걸음인 것 같습니다.

파송교회에서 20년 이상 된 사역자들의 기도편지를 책으로 엮어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게는 자료로 남아있지 않고, 94년부터 96년까지 초창기에 보낸 편지는 파송단체의 정기간행물에서 실린 것만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서문 한 장을 쓰면서 동역자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부르심을 받은 저의 삶과 한국과 땅 끝의 교회들을 위해 동역자님들과 기도로 교통하기를 소원합니다.

2016. 7. 9. 김에스더 드림